

BTS 제이홉의 오늘 있게 한 '광주 춤 스승들'

“사정이 여의잖아 더는 춤 수업을 듣기 어렵다던 중학생 호석이(제이홉-본명 정호석)에게 ‘우리댄스 크루에 들어오라’ 제안했던 것이 인연이 됐어요. 당시 크루 입단을 위해 철야 연습을 시켰던 일, 함께 MT를 떠났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하죠. 어느덧 호석이는 춤과 음악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저희에게 건강한 자국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 전역 직후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글로벌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메인 댄서 제이홉(j-hope). 광주 출신인 그에게는 잊지 못할 춤 ‘선생님’이 있다.

데뷔 이전부터 스트리트댄스와 ‘춤 문화’ 자체를 배워왔던 댄스 크루(Crew), 바로 2006년 지역에서 창단한 ‘뉴런’ (대표 김동우)이다.

지난 18일 밤 11시 뉴런 크루 연습실(중창로 67, 4층)을 찾았다. 늦은 시간이지만 정기 회의 및 연습을 위해 모인 이들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뉴런은 광주 출신 김동우(43·활동명 dxngWXX) 대표를 필두로 윤한석(42·AD.BOMB), 조민석(42·MISHKA), 고대기(36·DAEK2) 등이 함께한 로컬 힙합크루다. 각각 힙합, 코레오그래피(안무), 팝핀 등이 주 장르일 만큼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여기에 비트 메이킹과 음악 프로덕션을 맡은 윤승운(29·DHTK)과 박성우(30·Gamell·보컬)가 합류하며 자체적인 프로듀싱 역량까지 갖췄다.

이들은 동네에서 이름깨나 알렸던 ‘춤 춤 추는

2006년 창단 로컬 힙합크루 ‘뉴런’

중학시절 함께 연습하며 꿈 키워

올해 초 티빙 제이홉 다큐 출연도

안무부터 프로듀싱까지 다양한 활동

행들이 모여 ‘춤으로 연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팀을 형성했다.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크루는 물론 GO실용예술키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프로미스나인 송하영, 골든차일드 배승민, 밴디트 승은 등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호석을 처음 만난 건 선생님과 수강생 사이였다”며 “춤을 그만뒀어야 할 고민이 많았을 법한 시기에 그 빛나는 재능이 아까워서 함께 하기를 권했었다”고 했다.

이후 제이홉은 뉴런 입단을 위해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 3개월간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연습은 일종의 ‘수습 기간’이었으나 함께했던 크루원들은 “호석이가 춤에 대한 갈망 하나로 이 과정을 잘 버틴 것 같다”고 회상했다.

DAEK2는 “막둥이였던 호석이와 함께 MT 갔던 기억도 떠오른다”며 “당시 형들이 주니어 크루원들에게 장난도 많이 쳤는데, 호석이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씩씩해서 그런지 잘 적응했다”고 했다.

늘 잘 웃고 긍정적이었던 터라 제이홉은 뉴런



뉴런크루 활동 당시 제이홉(오른쪽)과 dxng WXX. (dxngWXX 제공)

활동 당시 ‘스마일 호야(Smile Hoya)’라는 예명을 썼다고 한다. 2013년 BTS 데뷔 당시에도 ‘호야’라는 활동명을 염두에 뒀지만 최종적으로 ‘제이홉’이 낙점됐다는 후문.

이들은 올해 초 티빙에서 공개된 다큐 ‘HOPE ON THE STREET’에 출연하기도 했다. 제이홉의 춤 여정을 따라가는 이 작품은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타이틀곡 ‘뉴런(NEURON·with 개코, 윤미래)’과 연결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제이홉이 앨범명을 ‘뉴런’으로 지은 뒤 “뉴런 크루는 나의 음악적 뿌리”라고 공언했을 만큼, 크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뉴런크루 멤버들이 티빙 다큐 ‘HOPE ON THE STREET’ 촬영 당시 함께 춤 추는 모습. (뉴런크루 제공)

루 활동의 소화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뉴런 크루는 촬영 당시 오랜만에 합을 맞추고, 광주비엔날레 일원에서 뒤풀이까지 하며 회포를 풀었다고 한다. 이후 BTS팬들과 함께 모여 ‘홉은 스테이(팬미팅)’도 진행했다.

“호석이가 자신의 길에서 상당히 큰 성공을 이뤄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춤과 광주의 추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스타를 꿈꾸는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처음 팀을 결성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광주, 전남에 춤은 물론 ‘춤 문화’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제는 호석이처럼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으니 많은 ‘춤’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가르쳤던 학생 중 ‘호석이’ 같은 사례가 나온 것처럼, 현재 춤을 배우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언제든지 ‘제2의 제이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들은 연례 댄스 행사인 ‘The dancer’를 오는 12월 30일(시간 미정)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속도

산업부 선정 13개 구간 1.7km 65억원 확보...산단 경쟁력 강화

전남도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서 대불산단 2단계 사업이 선정되면서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13개 구간 1.675km의 전선을 지하에 매설할 수 있게 돼 산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중심의 일반 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록이나 철 구조물 등 중선해양 기자재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높이 32m 이상의 메가 블록 생산이 증가했지만, 낮은 전선주 가공선로(8~12m) 때문에 불편이 컸다.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용 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선주를 만나면 전선을 절단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특히 공장 입구에 전선주가 있으면 메가 블록 제작이 불가능했다.

대불산단은 넓은 공장 면적과 산단 내 8차선 도로, 인접한 대불항, 많은 숙련 인력 등 블록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3년 선정된 구간을 합하면 총 20개 구간, 4.266km에 178억원 규모의 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학교, 도시재생지역 등 도시 권역에 국한됐으나, 전남도의 지속적인 권의를 통해 ‘노후산단’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산업부 공모에 대비해 영암군,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와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가장 시급한 구역을 중심으로 공모 대상 지역을 재조정했다. 이후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등을 찾아 직접 메가 블록 운송 동영상도 보여주는 등 설득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선 지중화 외에도 자동화·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대불산단 블록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중선산업 다각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AI 적극 활용 스마트 돌봄체제 구축

‘AI 하틴루 기기’ 보급 3년간 모니터링...실시간 건강상태·안부 확인

‘로봇과 AI가 어르신들 돌본다’ 1000여명의 전남지역 노인을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돌보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건강 점검, 활동감지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상 발생하면 보호자, 보호기관 등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향후 3년간 모니터링을 한 뒤 이들 기기를 보완할 예정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와 독거노인 급증 속에 실생활에서 로봇과 AI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부모님을 둔 출향인 자녀 대상 AI 돌봄케어 기기 보급 공모전을 통해 모두 40명에게 ‘AI 하틴루 기기’를 보급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문제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 향후 3년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유지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AI 하틴루는 1인 가구 전용 헬스케어 제품으로 ▲활동감지, 심박, 호흡, 수면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정보 ▲온도, 습도, 조

도, 공기질 등을 확인하는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앱을 통한 부모님 활동감지 및 안부확인 기능이 탑재됐다.

AI 하틴루를 설치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보호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홀로 계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도내 1100명에게 AI 반려로봇을 보급해 모니터링 중이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전남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지만, 돌봄 종사자 수가 극히 부족하다”며 “AI 돌봄 기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돌봄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을 호남 1위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철거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l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태림인더스트리(株) 법인설립
2011 수출확대분담,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 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사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株)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24년 11월 21일 주주총회로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미) 주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주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시 자본금 4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감소한다.
1. 자본감소 후 자본금은 금 300,000,000원으 로 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 보유주식 27,179주 중 15,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회장을 임명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간여 전 회계장부상 미회계분금 27,179주 및 450,000,000원
1. 간여 후 회계장부상 미회계분금 12,179주 및 300,000,000원

2024년 11월 22일
주식회사 오국건설
전라남도 곡성읍 오국면 가차마로 202
사회사 박 일 수

분할합병공고

2024년 11월 21일 주식회사 세진정보기술 대표이사 김세영(김)과 주식회사 에스디파워 대표이사 최마숙(최)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장법 제530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는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갑)의 재산(영업) 정보통신공사사업부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출일 이로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의등록번호 : 제620101호
2. 분할합병 예정일 : 2024년 12월 23일

2024년 11월 22일
갑) 주식회사 세진정보기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39길 4-18, 2층(양촌동)
대표이사 김 세 영

을) 주식회사 에스디파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마대길 302-1(마대동)
대표이사 최 마 숙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